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76호 1판 (음력 10월 24일)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광양·순천·여수시 갑상선암 발병률 높다

전국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국립암센터 2009~2013년)

	남자	여자
갑상선암	④ 순천시	① 광양시 ③ 순천시 ④ 여수시
위암	⑤ 보성군	② 장흥군
대장암	② 화순군	
폐암	② 영암군	⑤ 장성군
간암	③ 고흥군 ④ 신안군	

※ 숫자는 전국 순위

광주·전남지역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간암, 특히 남성 간암 환자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를 22일 발표했다. 암사망 통계는 지난 2005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했으나 전국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가 발표된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암종류별로 지역별 특이점을 살펴보면 갑상선암(2009년~2013년 기준) 발생의 경우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전남 4곳이 상위 5위(남 1곳·여 3곳)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순천이 4위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광양(1위)·순천(3위)·여수(4위) 등 4곳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간암의 경우 고흥(3위)·신안(4위) 등 2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남성에게서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전남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이 B형 및 C형 간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폐암은 영암(남성)과 장성(여성)이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으며, 대장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화순(남성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암 발병률은 남성 보성(5위), 여성 장흥(2위) 등 2곳이 상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 보면 남자 위암·폐암·간암의 발생률은 지난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남자 전립선암과 여자 유방·폐암은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일군사협정 오늘 서명 "굴욕적 매국협상" 반발

朴대통령, 특검법과 함께 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와 한일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GSOMIA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이르면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이내 서면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이 이날 한일GSOMIA을 재가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며,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의 가을, 노랗게 물들다 22일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광주 동구 금남로 은행나무 잎들이 강한 바람에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탄핵' 추진 속도 빨라진다

野, 비박계 접촉 설득 나서 … 다음달 초 탄핵소추안 의결될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속도가 빨라질 조짐이다. 〈관련기사 2·3·4·5면〉

여야 정치권은 탄핵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 시기와 방법 등 탄핵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야당이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에 사활을 건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초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탄핵안 발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탄핵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걱정하시는데 40~50명은 거뜬할 것으로 본다. 연판장을 받든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3분의 2(200명)를 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하겠다"며 "새누리당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의 자신감에도 불구, 관건은 새누리당 내에서 최소 29표 이상의 탄핵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71석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29석이 필요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인만큼 야권 내부에서의 이탈표를 가정하면 넉넉하게 35석 내외는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당내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하는 등 박 대통령 탄핵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비박계와의 협의를 강조한 만큼 물밑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호응하는 모양새다. 또 이날 탈당을 결행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탄핵 추진 의사를 보여 여권의 탄핵 찬성기류를 북돋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토 최서남단 흑산도에 '박근혜 퇴진' 촛불

주민들 26일 시국대회 열어
목포 등서 음향시설·피켓 지원

국토 최서남단 해역에 있는 흑산도 주민들이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힌다. 제주를 제외한 섬 지역에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국 촛불'을 켜는 것은 처음이다.

22일 '박근혜정권퇴진 흑산도운동본부'에 따르면 26일 신안군 흑산도 예리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시국대회'를 연다. 흑산도운동본부는 이날 최소 주민 1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특성상 그동안 촛불집회를 여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SNS 등을 통해 현 시국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흑산도 주민들은 지난 21일 뜻을 모아 흑산도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촛불집회를 앞두고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물러가라'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고 양초도 준비했다. 흑산도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목포운동본부가 음향시설과 피켓 등을 지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흑산도 주민들은 동해 최동단 울릉도와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과 공동 촛불집회를 추진하려다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